



일본,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부문 이익 확대

강윤지 연구원

요약

일본 국내 손해보험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해외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. 이에 2023년 상반기 전체 이익 중 60% 이상이 해외사업이익을 통해 달성된 손해보험 회사들(도쿄해상·솜포재팬)이 등장함. 일본 대형 손해보험 3사는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로 M&A를 통해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

-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 3사(도쿄해상·MS&AD¹⁾·솜포재팬)의 전체 이익 중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, 도쿄해상과 솜포재팬의 경우 2023년 상반기²⁾ 전체 이익 중 60% 이상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함
 - 도쿄해상의 2022년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5.0% 증가한 4조 4,699억 엔으로 일본 손해보험업계 1위이며, 그 뒤로 MS&AD 3조 9,344억 엔, 솜포재팬 3조 6,707억 엔임³⁾
 - 도쿄해상의 2023년 상반기 전체 이익 2,755억 엔 중 2,020억 엔(약 73.3%)이 해외사업을 통해 달성됨⁴⁾
 - 2023년 상반기 전체 이익 중 MS&AD는 40.4%,⁵⁾ 솜포재팬은 61.4%가 해외사업을 통해 달성됨⁶⁾
 - 일본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자 함
- 도쿄해상은 미국과 유럽 보험인수를 중심으로 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산운용 역량을 활용하고 있음
 - 도쿄해상은 해외 사업인수 및 자산운용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연초 예상했던 해외사업 수익인 3,760억 엔을 4,350억 엔으로 수정함
 - 2023년 연말 전체 이익 중 해외사업 비중은 약 56.1%에서 64.4%가 될 것으로 전망함
 - 도쿄해상은 2010년부터 미국, 영국 및 아시아 등에서 M&A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음
 - 도쿄해상은 해외사업 비중 확대를 위해 2015년 HCC 인수어런스 홀딩스를 당시 최대 규모였던 75억 달러에 인수 후 볼트온(Bolt-on) 전략⁷⁾을 활용함

1)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을 보유한 보험지주회사임

2) 일본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, 상반기는 4월부터 9월까지를 의미함

3) 業界動向サーチ(2023. 8. 23), “損害保険業界の動向や現状、ランキングなどを研究”

4) 東京海上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11. 17), “2023年度第2四半期決算概要及び通期業績予想”

5) MS&AD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11. 24), “2023年度第2回インフォメーションミーティング”

6)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11. 17), “2023年度中間決算説明資料”

7) 사모펀드(PEF)가 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기업을 사들인 뒤 다른 유관 기업을 인수해 개별 기업들의 가치의

- 2015년 이후 미국, 영국 호주 등의 기업들과 60건 이상의 M&A를 진행함⁸⁾
- 도쿄해상은 2012년 미국 보험회사 DFG(델파이 파이낸셜 그룹)를 인수하고 운용 위탁하는 자산을 증액함
 - 2012년 당시 운용 위탁 자산인 8,600억 엔에서 2018년 추가로 5,000억 엔 증액해 채권 운용에 활용하고 있으며⁹⁾ 델파이가 운용하고 있는 도쿄해상의 총자산은 2018년 4%에서 2020년 16%로 증가함

○ 솜포재팬은 2020년부터 적극적인 M&A를 통해 미국 및 유럽 중심으로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

-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6,000억 엔을 해외보험, 디지털, 개호 사업에 투자한다는 중기경영계획¹⁰⁾에 의해 해외사업 이익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함
 - 솜포재팬은 볼트온(Bolt-on) M&A를 통한 해외보험사업을 확대해 그룹 전체 이익 중 최근 2년 사이(2020~2022년)에 해외사업 비율이 30% 증가함¹¹⁾
 - 전체 수정연결이익 중 해외사업 비중은 2020년 14.9%였으나, 2021년 23.7%, 2022년 43.2%로 증가함
- 솜포재팬의 2023년 상반기 해외보험사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% 증가하였고, 2023년 전체 예상 이익 2,800억 엔 중 약 1,680억 엔이 해외보험사업에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
 - 2023년 상반기 해외보험사업 총보험료는 솜포재팬의 주력 지역인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8,800만 달러 증가한 90억 500만 달러임

○ 기존에 유럽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했던 MS&AD는 최근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

- MS&AD는 2023년도 예상 그룹수정이익 2,800억 엔 중 940억 엔이 해외사업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함
 - 2025년 예상 그룹수정이익 4,400~4,700억 엔 중 해외사업 이익으로 1,650억 엔을 목표로 함
- MS&AD는 주로 MS Amlin(암린)을 통해 해외사업 인수를 진행하며 2022년 해외사업 부문 순수입보험료 12,206억 엔 중 6,959억 엔이 유럽에서 확보됨
- MS&AD는 M&A를 통한 사업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¹²⁾ 미국 시장을 확대하고자 미국 Transverse(트랜스버스)사를 2023년 1월에 인수하여 스페셜티·MGA 관련 사업에 투자를 개시함¹³⁾
- 아시아의 경우 도요타 중심의 자동차보험 텔레매틱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¹⁴⁾

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시너지를 내는 전략임

8) 東京海上ホールディングス(2021. 5. 28), “東京海上グループ中期経営計画2023~成長への変革と挑戦~”

9) Bloomberg(2018. 10. 16), “東京海上H社長: 債券委託5000億円増へ、年率7%台の米子会社へ”

10) 日本経済新聞(2022. 4. 26), “SOMPO社長「米欧事業の比率高める」・新興のM&A検討”

11)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8), “SOMPOホールディングス統合レポート2023”

12) MS&AD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5. 25), “2023年度第1回インフォメーションミーティング”

13) MS&AD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8), “MS&AD統合レポート2023”

14) MS&ADホールディングス(2023. 11. 22), “2022年度第2回インフォメーションミーティング”